

완산공원 일대, 구도심 핵심 문화거점 구축

우범기 전주시장, 완산공원 꽃동산·완산도서관·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차례로 방문 현장점검 나서

우범기 시장은 지난 5일 '2024년 제 11차 민생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완산공원 꽃동산과 구도심 핵심 문화시설로써 올 7월 개관 예정인 완산도서관, 시험 운영을 앞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우 시장은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아 방문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꽃동산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꽃동산의 위치 특성상 차량 진입 시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화 기간 동안 관리구역 내 거주자(비표지급)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대신,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기간에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주천서로(완산교~국립무형유산원) 2km 구간 내 양면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교통 안내를 위해 주변 도로 차량 통제 및 주차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화장실 2개 동 설치 및 개화 기간 동안 관리구역 쓰레기 수거·정비에 방문객이 쾌적하게 꽃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어 오는 7월 시민들이



우범기 전주시장이 구도심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완산공원 일원을 찾아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문화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예정인 완산도서관을 찾아 시설물 구축현황 등 개관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완산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전환 사업은 지난 1989년 개관해 35년이 경과한 완산도서관을 연면적 6258㎡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리모델링해 책전

사·공연·미디어 창작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는 건물 외부 기존 45대 주차면을 147대로 102대 늘리는 등 주차장을 대폭 확충해서 도서관 이용객뿐만 아니라 완산철보과 한옥마을 방문객의 주차 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총 92억 원을 투입해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 중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이하 완산벙커) 구축 현장을 찾았다.

'폐쇄된 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람객이 탐험한다'는 주제의 완산벙커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10개의 방과 관람객 휴식을 위한 카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벙커를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곤지중 부근 임시 공영주차장 40면과 전주천(완산교~매곡교, 싸전다리~한벽교) 노상주차장 304면을 추가 조성하고, 향후 완산벙커 진입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산공원은 전주 관광 외연 확장의 핵심 공간으로 완산도서관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축으로 지역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관광 시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주의 정체성이자 도시 역사의 중심인 구도심에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라도의 대표도시인 전주시와 나주시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전주시·나주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2년 연속 기부 통해 상생 발전 다짐

전라도의 대표도시인 전주시와 나주시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상호 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전주시민과 나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와 나주는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의 어원이 되는 전라도 대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고을 '주(州)' 자가 있는 전국 15개 전국 동주도시교류협회 회원 도시로서 매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주와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양 지자체 제도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주(州)' 자가 있는 전국 15개 전국 동주도시교류협회 회원 도시로서 매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지역자원 활용 지역문제 해결할 참여자 모집

전주시, 19일까지 '로컬브랜딩 스쿨사업' 참여 40명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브랜딩 스쿨사업'을 추진한다.

'로컬브랜딩 스쿨사업'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최대 40명을 모집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로컬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총 세 가지로, △정주민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로컬브랜딩 스쿨 △로컬브랜딩의 기획 단계를 지원하는 로컬브

랜딩 커뮤니티 지원사업 △로컬브랜딩뿐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까지 도전해 보는 생활실현실 사업 순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스쿨 교육은 전문 강사들의 강의(8회)와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마라톤 회의인 해커톤(1회)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커톤 진행 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례자에게는 시상도 예정돼 있다.

로컬브랜딩 스쿨은 로컬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이수자는 향후 진행될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로컬브랜딩 스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누리집 또는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누리집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8-7103~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주형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 나서

전주시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관리·감독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실태점검의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중 통합(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11곳의 조합 중 6곳으로,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곳씩 점검하는 등 점차적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지난 2018년부터 시행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속도감이 있는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민원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유료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8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유료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 사업 운영상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업소 알선 등 직업소개의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추

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과다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비치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보통보험가입 또는 예치 의무 위반 여부 △그 외 직업 소개사업 준수사

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또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취업 알선 등의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